

최강 한파·폭설에 전남 서부권 수돗물 공급 비상

광역상수도망 끝자락 무안·신안 주민 극심한 불편 지자체, 동파·누수지 확인 분주...생수 등 공급 나서

50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로 무안을 비롯한 전남 서부권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장흥담 광역상수도망에 의존하는 전남 서부권 지자체들의 수도관이 동파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신안·영암 등에 따르면 최근 영하권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수도관의 동파와 누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무안군과 영암군은 재난문자를 통해 '송수관 누수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빨래 모아하기와 샤워시간 줄이기 등 절수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돗물 정상 공급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관계기관의 전망이다.

목포시에서는 누수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20% 이상이 늘어났고, 영암군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계량기 동파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중 70~80%는 가정내 계량기 동파지만 20~30%는 광역상수도망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로에서도 동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흥담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덕정정수장의 불 공급량을 늘렸지만 광역상수도망의 끝자락인 무안군과 신안군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현재 무안을 일부와 삼향읍 농공단지, 몽탄면, 현경면, 운남면, 일로읍 등의 200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주민들은 보일러 등 난방기 가동은 물론 생활용수마저 사용하지 못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군에서는 단수지역과 일부 고지대에는 생수를 지

원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고 물차 4대를 임대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무안지역은 9개 읍면 배수지의 저수용량이 평소 시 60~70%선이었으나 지난 12일부터 배수지 수위가 낮아져 현재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

라 군은 현재 상수도 점검 대행업체와 계량기 검침원 등을 동원해 상수도관 동파 여부와 누수 지역을 확인 중에 있다.

무안군 해제를 거쳐 장흥담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신안군 지도읍과 증도면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수압이 낮고 배수지의 유입량은 평상시보다 현저히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각 가정에 연결된 수도관 동파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빈집이 많고 주택이 산재한 농촌 특성상 빠른 시일내 누수지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 역시 "배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서 저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저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누수지역을 찾아 보수하고 있으나 배수지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안개 속 조심조심 광주·전남 아침기온이 오르면서 14일 오전 광주 도심이 안개에 휩싸이자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유지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교원 복지혜택 차별 없앤다 광주교육청, 기간제 점수 인상

광주교육청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복지혜택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1P=1000원)가 정규 교원에 비해 적어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복지점수 600P(기준 500P), 근속복지점수 300P(기준 150P)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할머니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는

양금덕·김성주·김정주 할머니 역정 담은 '자서전' 나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한 많은 인생이 오롯이 담긴 자서전이 발간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양금덕(91) 할머니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와 김성주(93), 김정주(91)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마르지 않는 눈물' 등 두 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서전에는 할머니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된 경위, 현지에서의 강제노역 생활, 해방 후 자식들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진 삶,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까지 나서 싸워 온 힘든 여정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할머니들은 '여자근로정신대'는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군수공장 등에 동원, 가혹한 강제노동을 당한 어린 소녀들이지만, 피해자들은 광복 후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를 받는 등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시민모임 측은 "주인공들의 삶은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의 단면이다. 일제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해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에서까지 싸워 온 피해자들의 고난에 찬 역정은, 그 자체로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고발해 온 인권투쟁의 역사이자, 장엄한 인간 승리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밝혔



다. 한편 이번 자서전 발간비용 1000만원은 발간 취지에 뜻을 같이한 1500여명 시민의 기부로 마련됐다. /김민서 기자 mskim@kwangju.co.kr

2년 치 초과근무 서류 분실 전남 고교 허술한 행정 적발

전남지역 모 고등학교가 2년 치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을 분실하는 등 학교 행정업무

를 소홀히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고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초과근무 확인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 인데도, 이 학교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 해당 고교는 2017년, 2019년 매점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학교 매점 사용 허가를 하면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한 정확한 재산 평가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료를 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민원서비스 '전국 최상위'

광주시 북구의 민원서비스를 접한 주민들이 북구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전국에서 최고로 꼽았다.

14일 북구에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직접 접하게 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4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이며, 종합 점수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나뉜다.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10%에 속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광주지역에서 북구가 유일하며,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한 곳만이 포함됐다.

민선 7기 들어 열린 구청장실과 민생현장 방문 날 시책을 운영하면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점이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게 북구의 분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